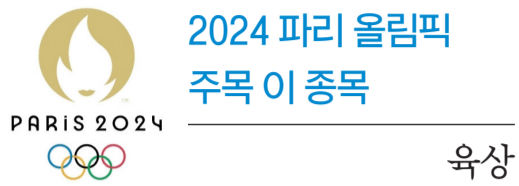


마라토너 명맥 끊긴 한국 육상...우상혁이 희망



높이뛰기 우상혁·경보 20km 최병광·세단뛰기 김장우 출전 마라톤 남녀 모두 출전 불발...트랙·투척 종목도 출전자 없어

로 결승선을 끊었다. 이후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계기로 한국 육상은 28년 만에 올림픽에 복귀한 이래 한 번도 빠짐 없이 마라토너를 내보냈다가 이번에 맥이 끊겼다. 대한민국 육상을 대표해 파리 올림픽에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 남자 경보 20km 최병광(삼성전자), 남자 세단뛰기 김장우(국군체육부대) 단 세 명만이 나선다. 파견 선수는 1명씩 나선 1952년 헬싱키, 1956년 멜버른 대회 이래 최소다. 이번에도 한국 투척 종목과 단거리·중장거리를 아우르는 트랙 종목은 올림픽편을 배출하지 못했다. 3년 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한국 육상 대표도 7명에 불과했다. 우상혁과 최병광, 남자 장대높이뛰기 진민섭에 남녀 마라토너 4명이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다. 우상혁은 올림픽 기준기록을 일찌감치 통과해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최병광과 김장우는 세계 육상연맹의 파리 올림픽 랭킹 포인트로 세계 최고 무대에 설 자격을 확보했다. 수영, 체조와 더불어 육상은 올림픽의 전통적인 기초 종목으로 꼽힌다. 파리 올림픽 육상은 현지 시간 8월 1일부터 폐회일인 11일까지 열린다. 세부 종목 48개에 걸친 금메달을 놓고 18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주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를 뜨겁게 달군다. 국한의 종목인 경보 남자 50km가 사라진 대신 남

녀 1명씩 팀을 이뤄 42.195km를 걷는 마라톤 경보 혼성 계주가 새로 채택됐다. 사상 최초로 남자 마라톤이 아닌 여자 마라톤이 육상 경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도 이채롭다. 파리 시간 8월 10일 오전에 남자 마라톤이, 8월 11일 오전에 여자 마라톤 레이스가 펼쳐진다. 혼성 경기를 늘려 남녀 성비 균형을 추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결과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은퇴)의 후계자로 입지를 굳힌 노아 라일스(미국)의 단거리 3관왕(100·200·400m 계주) 달성 가능성이 파리 올림픽에서 크게 관심을 끈다. 최병광은 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파리 올림픽 육상의 시작을 알리는 남자 20km 경보에 출전한다. 김장우는 8월 8일 예선에 출전하며, 우상혁은 8월 7일 오후 5시 5분 예선을 치른 뒤 8월 11일 오전 2시 10분 결승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여자 100m 결승(8월 4일), 남자 100m 결승(8월 5일), 여자 200m 결승(8월 7일), 남자 200m 결승(8월 9일) 등 세계인의 이목을 끌어모으는 레이스가 연일 이어진다. /연합뉴스



‘곡성 출신’ 세단뛰기 김장우 “파리서 결선 진출하고 오겠다”

김덕현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출전

2024 파리올림픽에 단 3명만이 출전하는 한국 육상에서 남자 세단뛰기 김장우(국군체육부대·사진)가 함찬 도약을 선보인다. “3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파리올림픽을 위해 준비해 왔다”는 김장우는 “이번 올림픽에서 반드시 결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포부다. 곡성 육과면이 고향인 김장우는 전남체고를 졸업하고 한국체대를 나온 뒤, 지난해까지 장흥군청에서 뛰었다. 랭킹 포인트 순위가 따라 이번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김장우는 광주시청 간판 김덕현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에 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세단뛰기 선수가 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에는 32명이 출전하는데, 김장우는 지난 3일 세계육상연맹이 공개한 파리올림픽 랭킹 포인트 최종 순위 32위에 자리했다. 김장우는 “최종 순위가 발표되기 전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잤던 것 같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슷한 랭킹의 선수를 경기를 찾아봤다”고 당시 떨리던 심정을 이야기했다. 그에게 힘이 돼준 것은 주변에서 올림픽 무대를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광주시청 육상 감독인 김덕현과 현재 그의 지도자 ‘멀리뛰기 절대 강자’ 김종일 대표팀 코치도 김장우가 의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장우는 “올림픽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던 상황에서 국영이 형이 ‘올림픽 갈 수 있을 거다.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준비해라’라고 얘기해 주셨다. 어렸을 때 합숙 훈련에서 멘토로 국영이 형을 처음 만났다. 선수로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선배다. 그리고 김종일 코치님께서 옆에서 많이 잡아주고 계신다. 늘 큰 힘이 되어주신다”고 전했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김장우는 ‘제2의 김덕현’으로도 불리며 한국 세단뛰기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김장우는 16m 59cm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내며, 2015년 중국 우한 대회에서 획득한 김덕현의 금메달(16m86) 이후 8년 만에 한국에 메달을 안겼다. 지난 2월에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16m37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육상은 김장우를 비롯해 높이뛰기 우상혁, 경보 20km 최병광 단 3명만이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다.

김장우는 8월 8일 생드니에 위치한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기대했던 파리올림픽에서의 화려한 첫 도약을 선보이게 된다. “학생 때 2016년 리우올림픽을 지켜봤을 때는 올림픽은 정말 먼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다”고 이야기한 김장우는 “지난 도쿄올림픽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나도 저기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 생각만 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예선 12위 안에 들어 꼭 결선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인비,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 본격 시동

파리올림픽 기간 4명 선출

오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인 위원 탄생 여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골프 전설’이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골든 커리어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가 18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에 즈음해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7일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그리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세 명의 IOC 위원을 두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김 회장은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총회 투표를 거쳐 IOC에 입성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회장은 2016 리우 올림픽 기간 선수 투표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일선에서 맹활약했다. 선수위원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선수들이 직접 뽑는 위원으로 임기는 8년이다. 올림픽편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하며 당선되면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유 위원은 파리 올림픽 폐회와 함께 2016년 선거에서 동반 당선되거나 IOC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수위원이 된 다른 6명의 동료와 함께 임기를 마무

리한다. IOC 선수위원회는 이들의 뒤를 이을 차기 선수위원을 파리 올림픽 기간 투표로 4명 선출한다. 여성 18명, 남성 14명을 합쳐 32명의 후보가 IOC의 심사를 거쳐 선수위원 선거 최종 입후보자로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눈부신 선수 이력을 겸비한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의 결정으로 ‘사격 황제’ 진중오(현 국회의원), 배구 선수 김연경(홍국생명) 등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됐다. 이어 전 세계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IOC의 심사 관문도 가뿐히 통과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획득했다. 박인비가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 위원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박인비 만큼 화려한 이력을 쌓은 선수는 미국 단거리 스타 출신 엘리스 필릭스(38)다. 필릭스는 2004 아테네·2008 베이징·2012 런던·2016 리우·2020 도쿄 등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집한 간판 스프린터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수촌 최초 개촌일부터 폐장일까지 선수촌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상대로 직접 유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지정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